이달의 으뜸중기제품 서광알미늄 '브래나'

전자레인지 돌려도 되는 일회용 알루미늄 용기

주름진 곳 없어 불꽃 안 튀어
설거지 까다로운 요리에 제격
가정간편식 제품에도 사용돼
올 6월 베트남·印尼 수출

쿠킹포일이나 알루미늄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은 주방의 상식이다. 그런데 알루미늄 용기 제조업체인 서광알미늄이 상식을 깨뜨리는 제품을 내놨다. 다용도 용기 '브래나'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지만 전자레인지에 넣고 음식을 데울 수 있다. 불 위에 놓고 일반 주방냄비처럼 조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황혜실 서광알미늄 대표는 "국내에선 처음으로 직화요리는 물론 전자레인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일회용 알루미늄 용기를 내놨다"며 "계란찜이나 치즈요리 등 설거지가 까다로운 요리를 하는 데도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고 말했다.

황혜실 대표가 전자레인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브래나'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이우상 기자

◆"개발하면 수요 충분"

2010년 호주에 거주하던 황 대표는 현지 사람들이 알루미늄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래도 괜찮냐"고 물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켜봤더니 우려와 다르게 전기불꽃이 튀거나 불이 나는 일이 없었다. 영국 여행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대형마트에 들렀더니 전자레인지에서 사용 가능한 알루미늄 용기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2012년 한국으로 돌아온 황 대표는 전자레인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알루미늄 용기가 국내에도 수입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수입은 되고 있었지만 일회용 제품인 데다 개당 단가가 비교적 높아 널리 쓰이지 못했다. 황 대표는 2013년 서광알미늄을 세우고 알루미늄 용기 제작에 나섰다. 적정한 가격에 내놓으면 국내에서도 수요가 충분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금형 오차 0.1㎜ 극복

알루미늄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넣어도 안전한 이유는 주름이나 각진 곳 없이 매끄러운 표면에 있었다. 전자레인지에 알루미늄 용기를 넣었을 때 불꽃이 튀는 것은 전자파 때문에 알루미늄 표면 위에 생긴 전류가 뾰족한 곳으로 모여들기 때문이다. 서광알미늄은 용기 안팎 모든 표면의 주름과 각진 곳을 최소화했다.

황 대표는 "알루미늄 원자재를 금형으로 찍어내는 1초도 안되는 짧은 시간에 용기의 부분마다 마찰계수를 다르게 적용해야 주름이 생기지 않는다"며 "허용되는 금형의 오차는 0.1㎜ 이내로 매우 정밀한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공정 때문에 서광알미늄이 내놓은 용기 브래나는 만져봐도 까끌까끌한 부분이 없다.

◆가정간편식 시장에서 선전

서광알미늄은 연 2조원 규모로 성장한 국내 가정간편식(HMR)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 지난해 1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HMR 브랜드인 이마트의 '피코크'와 롯데마트의 '요리하다'가 서광알미늄이 만든 알루미늄 용기를 사용하고 있다. 직화요리가 가능해 소비자들은 비닐 포장만 뜯고 바로 불 위에 올려 조리하면 된다. '요리하다'는 다음달 브래나를 활용해 전자레인지에서 바로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서광알미늄은 오는 6월부터 수출도 시작한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유럽산 제품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만 골라 진출할 계획이다. 황 대표는 "올해는 지난해의 2배에 달하는 3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화성=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art@hankyung.com)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세연-스마트 파티션 (032)822-7060 △서광알미늄-다용도 알루미늄 냄비 '브래나' (031)357-9338 △한아툴스-몬스터쿠커 5종 세트 (051)714-7200 △알무스이앤티-전기집진기 에어니아 H30 (02)308-6944

"대기업도 힘든 유럽시장 무역사절단 덕분에 뚫었죠"

'수출 초보기업' 길닦아 주는 중진공 ❸

지역중기수출마케팅사업 참여업체 직원들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과 사전 상담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제공

모델링팩 생산업체인 스킨리더는 재작년부터 세계 최대 화장품 유통업체인 세포라에 납품을 시작했다. 지금은 유럽 13개국 800여개 매장에 제품을 공급한다. 권태봉 스킨리더 대표는 "화장품 한류의 영향이 중국과 동남아에 집중돼 있어 대기업들도 북미·유럽 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014년부터 참여해 온 무역사절단 사업이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무역사절단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등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선정해 현지 기업들과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중소기업청과 중진공이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 사업의 일환이다.

중소기업청과 중진공은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 사업으로 지금까지 2만502개사를 지원해 수출계약 1711건을 성공시켰다. 작년엔 1891개 중소기업이 총 1조1100억여원어치의 수출계약을 맺었다. 사업 참여 업체들은 일반 기업보다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전체 수출액이 전년 대비 6% 줄어든 작년에도 이들 기업은 평균 5% 이상 수출을 늘렸다.

수출이 급격히 성장한 업체도 적지 않다. 2013년도 수출 실적이 없었던 스킨리더는 2014년 3300만원어치 수출에 성공한 뒤 2016년에는 약 5억원의 매출을 수출로 올렸다. 기술력을 인정받아 올해 수출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회사 측은 예상했다. 말레이시아 사사(SASA)와 약 13억원, 멕시코 샐리(Sally)와 약 10억원의 납품 계약을 협의 중이다. 사사는 말레이시아 홍콩 싱가포르 등에 600여개 매장을 보유한 아시아 최대 뷰티스토어다.

'수출 물꼬'를 튼 곳도 있다. 배관 이음쇠를 생산하는 태일공업사는 작년 10월 중동 업체로부터 3억5000만원 규모의 계약을 따냈다. 창업 22년 만의 첫 수출이었다. 조길래 태일공업사 대표는 "국내 시장에서는 오랜 업력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해왔지만 해외에선 인지도가 낮아 바이어를 찾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사업에 참여하면서 바이어와 지속적으로 상담하며 해외 시장 진입장벽을 극복했다"고 말했다.

위봉수 중진공 수출지원처장은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사업이 수출을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수출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해외 마케팅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美 최대 홈퍼니싱 브랜드 연내 상륙

〈윌리엄스소노마〉

현대리바트 '집꾸미기' 사업 확장
10년 내 매장수 30곳으로

현대리바트(대표 김화응)가 '집꾸미기'(홈퍼니싱) 사업 확장에 나선다. 미국 최대 홈퍼니싱 기업 윌리엄스소노마 제품을 들여와서다.

현대리바트는 윌리엄스소노마의 4개 브랜드(윌리엄스소노마, 포터리반, 포터리반 키즈, 웨스트 엘름) 매장 8곳을 연내 열 예정이라고 27일 발표했다. 앞으로 10년 이내 매장 수를 30곳까지 늘릴 계획도 밝혔다.

윌리엄스소노마 관련 매출만 내년에 1000억원, 2021년까지 4000억원(누적 기준)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잡았다. 윌리엄스소노마 매출이 더해져 올해 현대리바트 전체 매출은 전년(7356억원) 대비 약 14% 증가한 8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엔 매출 1조원을 넘기는 것도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윌리엄스소노마는 총 8개의 하위 브랜드를 보유한 홈퍼니싱 전문기업이다. 가구 침구 주방용품 주방가전 식기 등이 주된 품목이다. 2015년 기준 매출이 약 5조5000억원에 이른다. 미국을 비롯 캐나다 영국 호주 등 7개국에 진출했다. 아시아에선 필리핀에 유일하게 매장을 뒀다. 한국에선 현대리바트가 지난달 윌리엄스소노마 매출의 90%가량을 차지하는 4개 브랜드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확보했다.

국내 1호 매장은 상반기 문을 열 예정인 서울 송파구 현대시티아울렛 가든파이브점이다. 포터리반, 포터리반 키즈, 웨스트 엘름 매장이 들어간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한국콜마홀딩스 전문경영인 체제로

김병묵·안병준 대표로 선임

김병묵 대표

안병준 대표

한국콜마 지주회사인 한국콜마홀딩스가 전문경영인 체제를 구축했다.

한국콜마홀딩스는 27일 김병묵 부사장(57)과 안병준 부사장(45)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화장품 의약품 전문 제조사 한국콜마와 건강기능식품 제조사 콜마비앤에이치 등의 지주회사인 한국콜마홀딩스는 윤동한 회장을 중심으로 3인 대표체제를 갖추게 됐다.

김 신임 대표는 영남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삼성엔지니어링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맡은 뒤 한국콜마 인사지원본부 부사장을 지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온 안 신임 대표는 삼일회계법인을 거쳐 한국콜마 기획관리본부 전무, 경영지원본부 부사장을 역임했다. 회사 측은 두 신임 대표가 윤 회장을 도와 질적·양적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회장의 장남 윤상현 한국콜마 사장은 한국콜마홀딩스 대표직에서 물러나 사내이사로만 남는다. 한국콜마 화장품의 글로벌 사업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콜마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조홍구 제약부문 대표(부회장) 후임으로 최학배 사장(60)을 선임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모십니다

'조달제품 한눈에' 나라장터 엑스포

조달청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도, 고양시와 함께 '2017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를 엽니다.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사업, 새싹기업 지원 등 공공조달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과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판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총 300여개 기업의 800여개 신제품을 선보입니다. 공공구매 전문가를 위한 구매실무교육, 기업인을 위한 세미나, 해외시장 진출 설명회 등 다양한 행사도 엽니다.

- 일시: 4월19일(수)~21일(금)
- 장소: 고양시 킨텍스 4, 5홀
- 전시 품목: 조달청 등록 우수 조달물품, 다수공급자계약(MAS)물품, 신기술 인증제품 등(전기전자관·사무기기관·건설환경관·기계장치관·새싹기업관·안전제품전시관)
- 문의: 사무국 (031)995-8282,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02)521-0014, 홈페이지(www.koppex.com)

주최: 조달청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도 고양시 후원: 한국경제신문
주관: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정부조달마스협회 킨텍스